

장기해고노동자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A Qualitative Study on Long Term Laid off Workers' Psychological Experiences: Focusing on labor Union Members

임정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Jeong-Sun Lim(jslim@iscu.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장기해고노동자들이 해고와 이후 실업기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 변화과정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평균해고 기간이 8년 4개월인 남성 해고노동자로 5명을 심층 면담하였다. 해고 당시의 심리적 경험, 해고 이후 지속적인 심리적 또는 신체적 변화, 현재 상태, 해고기간 동안의 대처방법 등을 반구조화 질문지에 근거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21개의 하위 주제와 이를 포괄하는 5개의 상위주제를 구성하였다. 중요상위주제는 '해고 당시와 이후의 감정과 인식', '해고가 장기화되면서 생기는 증상과 변화', '장기화된 현재의 상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양상', '해고에 대한 대처' 이었다. 상위주제와 하위범주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와 관련된 장기해고노동자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기해고노동자의 변화 및 경험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장기해고노동자 | 해고 | 실업 | 현상학적 연구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change related to how long term laid off workers experienced layoff and the subsequent period of unemployment using a phenomenological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five laid off workers whose average period of unemployment was 8 years and 4 months, and they were surveyed through in depth interviews. By in depth interviews based on a semi structured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about the subjects' psychological experiences at the time of layoff, continuous psychological or physical changes after the layoff, current state, coping methods during the period of unemployment, etc. From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derived 21 sub themes and 5 main themes that comprehended the sub themes. The five main themes were 'emotion and perception on and after layoff,' 'symptoms and changes resulting from the lengthening of layoff,' 'lengthened current state,' 'pattern of social perception,' and 'coping with layoff.' The main themes and the sub themes were described and long term laid off worker' associated experiences were explained in detail. Lastly, long term laid off workers' changes and experiences were discussed based on previous studies.

■ keyword : | Long Term Laid Off Worker | Layoff | Unemployment | Phenomenological Study |

I. 서론

한국의 노동시장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자의 해고가 경제적인 위기상황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상황이 아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노동환경으로 변화하였다[1]. 이러한 해고는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해고는 해고 사유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고가 경영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통상해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징계해고,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정리해고로 구분할 수 있다[2]. 해고가 어떤 사유로 인해 발생하더라도 노동자에게는 경제적인 면에서부터 심리적인 면까지 매우 큰 타격이다. 2009년 있었던 쌍용차의 정리해고의 경우 정리해고와 옥쇄투쟁 이후 사망자가 28명이나 발생하였다[3][4]. 쌍용자동차 노동자 자살률은 수년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한국의 일반자살률의 3.7배이다[5]. 이는 해고가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는 선명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해고로 인해 노동자는 실업상태에 처하며 이러한 실업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첫 번째인 자식의 사망, 두 번째인 배우자의 사망, 세 번째인 부모의 사망에 이어 네 번째가 실업이다[6]. 실업은 자존감 저하, 자살상념, 상실감, 절망감, 우울감, 피해의식 등을 유발하고 신체적 증상으로는 두통, 불면증 등을 유발한다[7]. 실업자 주요 증후군으로는 대인공포증, 우울증, 자기주장 미숙, 조증, 무기력, 낮은 자존감, 지나친 자기중심, 부모갈등 심화, 타인 의존증, 우유부단함, 은둔, 부정적 사고, 심한 불안증, 틱증상을 들 수 있다[8]. 실업은 심리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해고자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파업으로 징계해고된 장기해고노동자의 심리적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장기해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들의 심리적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장기간의 해고 현상에 관하여 무엇을 경험하였는지, 장기해고라는 현상에 대한 경험에 전형적으로

로 영향을 준 맥락이나 상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개입이 일차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심리적인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심리적인 개입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근거

1. 실업과 정신건강

해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해고에 대한 연구보다는 해고와 같이 여러 사유로 인해 실직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실업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산업화 이후 실업은 산업화된 국가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20세기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실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실업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다양한 근거에 기반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

Lazarsfeld(1933)의 '단계모델'은 실업으로 인한 반응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일자리의 상실로 인한 쇼크반응, 두 번째 단계는 구직에 대한 낙관, 세 번째 단계는 구직에서의 비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망이라는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 모델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을 가정하고 있는 점에서 일차원적인 모델로 비판받기도 한다[9].

여기에 더해 실업과 관련한 중요한 두 개의 이론으로 Jahoda(1983)의 결핍모델과 Warr(1987)의 비타민 모델이 있다.

Jahoda의 '결핍모델'은 노동의 역할에 관한 모델로서 노동은 일차적인 기능인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현대 산업사회에서 정신건강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고 있다. Jahoda는 노동의 여섯 가지 기능으로 일상에서 노동시간으로 인한 규칙적인 시간의 구조화, 가족이나 친구를 넘어서는 사회적 접촉, 공동체의 목적이나 의미구조 확보, 사회적 정체성과 지위확보, 규칙적인 일상, 자신의 생활환경 통제 기회를 들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실업상태가 되면 이러한 기능이 상실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0].

Warr의 '비타민 모델'은 신체적 건강에서 비타민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건강에서 환경조건의 효과를 가정하였다. 이 모델은 신체적 건강에서의 비타민처럼 정신건강에 필수적인 환경조건을 다음의 아홉 가지로 가정하고 있다; 1) 자신의 삶의 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 2)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3) 동기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외부목표의 존재, 4)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변화, 5) 결과의 예측가능성, 6) 충분한 경제적인 자원의 확보가능성, 7) 신체적 안전, 8) 사회적 접촉, 9) 자존감과 인정을 유리하게 하는 사회적 위치. 이 모델의 핵심은 환경비타민이 부족하면 정신건강도 위험해진다는 것이다. Jahoda가 노동에서 정신건강이 나오는 것으로 보는데 반해 Warr는 필수적인 환경조건에서 정신건강이 비롯된다고 본다[10].

실업으로 인한 심리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들을 살펴보면 Seligman(1975)의 학습된 무기력은 원하지 않는 실업이라는 상황에서 경험되는 통제상실을 조명하고 있다[10]. 이 이론에서는 실업으로 인해 삶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실망과 무기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본다.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결핍이 생기게 되면서 우울한 기분, 축소된 자존심, 저하된 대처능력, 수동성 등을 보이는데 이는 장기실업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다.

Goffmann(1968)의 낙인이론은 특히 장기실업자의 상황에 적용된다. 낙인이론에서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평가, 그리고 자기인식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정상과 비정상의 관계를 주제화해서 연구하고 있다 [10].

실업상황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심리학 이론으로는 스트레스 모델이 있다[11]. 이 이론에서는 특히 실업을 개인의 대처능력이 요구되는 위기상황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가 적응적이지 못하고 한계에 다르면 정신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12-14]. 열거한 이론들은 실업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 해고

해고에 관한 연구보다 해고로 인한 실업에 대한 연구가 주로 연구되었다.

해고노동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자의 연구[15]에서 해고 이후 생기는 삶의 변화로 소득의 격감, 가족관계 악화, 이혼과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 생활습관의 변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악화 등을 보고하고 있다. 해고 이후 물질적 정신적 지원과 같은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72%이었으며 경제적 후원을 받는 경우는 3.81%에 불과하였다. 2008년 해고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에 관한 연구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두드러지는 부분은 높은 자살률이다[5].

해고는 사용주가 노동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는 심리적인 충격이 다른 사유로 인한 실직보다 클 수 있다. Barwinski-Faef는 해고로 인한 충격을 4단계로 분류해서 설명하였다. 흥분분한 기분을 느끼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실직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의 장점들을 보려고 한다. 거부, 무기력, 우울과 분노의 감정들이 나타나는 두 번째 단계에는 해고 당시의 수많은 기억을 떠올리고 혼잣말을 하게 되고 해고 당시의 상황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항의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후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절망, 지침, 굴욕, 무가치한 느낌 등을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실업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무감각한 상태로 함몰된다. 이러한 경험을 모든 해고자가 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실업이 장기화되면 흔히 모든 단계를 경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17].

3. 실업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실업자들의 심리적 고통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다. 수입이 없어지면서 경제적 제한이 생기고, 빚까지 생기게 되는 경우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폭된다. 실업상태를 부끄럽게 여기는 실업자에게 정신장애가 나타나고 건강이 악화되며 생활습관과 활동의 변화, 사회적 관계에서의 변화가 나타난다[18]. 실업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회적 지지체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실업자가 개인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탄탄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때 스트레스가 낮다[19]. 관계네트워크에 통합되었을 때 심리적인 문제인 두려움, 우울, 불면증이 적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다[20].

실업자가 자신의 상태를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의미로 수용하게 되면 개인의 정체성이 위협받게 되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보다 심리적 문제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후 자살에 실패하고 도주했다가 체포된 가장의 경우 실업자로 자신의 부채를 청산하고도 남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라는 것을 자신의 가족에게 알리는 것보다는 가족을 죽이는 범행을 시도하였다[21]. 노동집약적인 사회에서 직업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정체성에 큰 의미를 두는 경우에 실업상태를 숨기는 시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실업이 어느 사회에서나 심리적 위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업이 사회에서 얼마나 특수한 상황인지 또는 일상화된 상황인지에 따라 위험 여부가 다르게 나타난다. 젊은층의 실업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실업이 일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0]. 다시 말해 낙인효과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실업자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업기간으로,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 무기력, 체면 손상, 낮은 자기효능감이 나타나고 경제적 불안, 분노 등이 높아진다[7].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직장에서 파업을 한 후 징계해고를 당하고 현재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해고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국내에 해고노동자의 심리적 문제를 연구한 논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심리적 경험을

연구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고자의 노동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노동전문상담사에게서 자문을 구한 후 노동조합에 소속된 해고노동자를 소개받는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장기해고기간을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들 중 복직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해고자로 있는 최소 3년 이상의 해고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소개받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 연구참여의 자발성, 참여의사 철회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인터뷰 녹음을 명시한 연구 참여 안내서를 메일로 보내고, 이 내용을 읽고 동의한 연구 참여자들과 인터뷰 일정과 장소를 정했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동의한 연구자의 연구실로 연구참여동의서를 작성한 후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였다.

2. 연구 참여자들의 특징

연구 참여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4명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1명의 해고노동자들로, 전원 5명의 남성이었다. 해고 이전의 직업은 운송기사, 승무원, 관리요원, 정비사, 사무직이었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47.4세였다. 해고기간은 4년 1명, 5년 1명, 11년 3명으로 평균 해고기간은 8년 4개월이었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파업으로 인해 징계해고가 되었고 해고기간동안 노조일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또한 노조가 실업급여와 같이 매월 구호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특징

| 구분 | 연령 | 성별 | 결혼 여부 | 자녀 수 | 학력 | 해고 전 직업 | 근무 기간 | 해고 기간 |
|----|-----|----|-------|------|--------|---------|-------|-------|
| A | 50세 | 남 | 결혼 | 2명 | 대학교 중퇴 | 운송기사 | 8년 | 11년 |
| F | 49세 | 남 | 결혼 | 3명 | 대학교 중퇴 | 승무원 | 9년 | 11년 |
| H | 45세 | 남 | 결혼 | 1명 | 전문대졸 | 관리요원 | 16년 | 5년 |
| I | 46세 | 남 | 결혼 | 3명 | 대학교 중퇴 | 사무직 | 7년 | 11년 |
| J | 47세 | 남 | 결혼 | 2명 | 고졸 | 정비사 | 8년 | 4년 |

3. 자료수집과 분석

면담은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진

행되었다. 장기해고라는 상황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공통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를 하였다. Polkinghorne(1989)는 현상학적 연구에서 자료수집을 위해서 현상을 경험한 5명에서 25명의 개인 면담을 권하고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제해고 된 후 4년 이상 해고노동자로 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했거나 현재에도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를 심층적으로 면담하였다. 인터뷰 질문의 근간은 현상학적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장기간의 해고 현상에 관하여 무엇을 경험하였는지, 장기해고라는 현상에 대한 경험에 전형적으로 영향을 준 맥락이나 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다[22].

면담을 위해 해고 및 실업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을 준비하였다. 여기에는 인구통계학적 내용, 성장배경, 일상 근무 당시의 경험, 해고사유, 해고당시에 대한 심리적 경험, 해고 이후 지속적인 심리적 또는 신체적 증상, 해고 후 실업기간의 대처방법(심리적 대처방법 포함), 현재 상태에 대한 설명(심리적 경제적 곤란도 포함) 등 해고 전후를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 포함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해고노동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인터뷰 중에는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면담 시간 내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공감 및 경청과 같은 상담기법을 활용하여[23] 심층적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최소 90분에서 180분 정도 소요되었고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진행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아 녹음하였고 이후 면담내용을 축어록으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해고노동자의 심리적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의미 있는 진술들과 이에 대한 현상을 기술하는 Colaizzi(1978)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23].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 분석을 위해서 축어록을 수차례 읽으면서 전체에 대한 느낌을 파악하였다[24]. 면접내용 중 연구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기본 의미 단위를 구성하였다. 기본의미 단위 중 유사한 내용을 하나의 범주로 만들고 각 사례의 범주들

을 비교하여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이름으로 21개의 범주로 축약하였다. 질적 연구의 목표 중 하나인 중요한 주제나 패턴을 찾기 위해서[23] 분석한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코딩이나 범주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분석 내용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석 내용이 적절한지를 연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확인하였고[25], 이 과정에서 코딩과 범주화가 다시 필요할 경우 원자료인 축어록 읽고 내용을 재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범주화를 한 후에는 주제 분석을 하였다. 주제 분석을 통해서 통합적인 구조를 발견하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5개의 주제를 확인하였고 이 주제를 중심으로 경험의 본질적인 구조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삼각검증의 과정으로 1차 자료 분석과 2차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 한 명의 질적 연구자(박사학위 소지자), 한 명의 상담전문가(석사학위 소지자)와 토론과 조언으로 개인적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과정 중 연구자의 민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고 및 실업 관련 내용의 학술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사 자료를 참고하였고 연구자의 지식이나 가정 등을 확인하면서 반성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IV.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의 상위주제와 21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를 [표 2]에 정리하였으며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상위주제와 하위범주

| 상위주제 | 하위범주 |
|-----------------------|-----------------------|
| 해고 당시와 이후의 감정과 인식 | 해고를 실감하지 못함 |
| | 분노 |
| | 마지막 판결 전까지 복직의 희망을 가짐 |
| | 마지막 판결 후 해고를 실감하게 됨 |
| 해고가 장기화되면서 생기는 증상과 변화 | 짜증, 외로움 |
| | 불면증, 알콜 의존 |
| | 감정조절의 어려움 |
| | 피해의식 |
| | 배우자의 증상 |
| | 노동욕구 |

| | |
|---------------|-------------------------------------|
| 장기화된 현재의 상태 | 불안감, 무기력, 화, 일코을 남용 |
| | 괴리감, 고립감 |
| | 다른 해고자의 상태가 미치는 영향 |
| | 행복감 |
| 사회적 인식에 대한 양상 | 해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염려 해고된 사실을 숨김 |
| 해고에 대한 대처 | 개인적 노력 |
| | 가족의 지원 |
| | 사회적 지원 |
| | 연대투쟁의 경험 노조의 상담지원 |

1. 해고 당시와 이후의 감정과 인식

노조¹의 간부로서 파업으로 인한 징계해고를 당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해고보다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노조의 내부문제와 대처방법에 집중하였고 징계해고를 당했지만 근본적으로 합법파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후 복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파업 당시에는 해고 사실에 대해서 큰 감정적 동요를 겪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해고보다는 동료의 해고나 노조 내부의 일들에 슬퍼하고 분노하였다.

1.1 해고를 실감하지 못함

“해고가 심각하다거나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오히려 딴 데 신경이 가있어 가지고, 뭐였냐면 파업이 끝나고 나서.....내부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혼란스러운 와중에 해고통지서를 받은 거기 때문에 받을 때 당시에 그렇게 심정적으로 별다른 느낌이 없었어요” (F씨)

“근데 그 당시에는 해고는 아, 해고되면 어때, 근데 이게 생각인데 막 안 와 닿았어요. 뭐, 좀 지나보면 복직 되겠지 정도” (J씨)

1.2 분노

“해고된 초기에는 당연히 말씀 드렸듯이 뭔가 하나 만들어야지 이대로는 있으면 안 된다, 막 위기에 처하고 분노, ‘우리가 잘못된 게 없는데 잘렸다’ 이렇게 해서 그런 위기들도 있었고 분노들도 있었고 ‘뭔가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었어요” (F씨)

1.3 마지막 판결 전까지 복직의 희망을 가짐

복직소송은 3-4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이전의 해고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 복직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이 기간에 노조에서 근무하면서 복직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 책이나 사례를 보면 다 복직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뭐, 우리가 뭐 크게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복직 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5년 안에는 복직하지 않겠다’ 혼자 속으로” (I씨)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합법 파업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합법 파업을 했기 때문에. 지방노동연합, 중앙노동위원회 하고 법으로도 살 수 있을 거라는 게 있었어요. 희망이. 그래 가지고. 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 때는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H씨)

1.4 마지막 판결 후 해고를 실감하게 됨

법원의 마지막 판결 후 연구 참여자들은 법적으로는 더 이상 복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심리적인 고통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대법 판결 났을 때는 멍~했었어요. 그냥 멍..‘끝났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복직 못 하겠다’ 생각이 드니까. 네. 지방노동이나 중앙노동이나 1심, 2심 때랑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법이면 더 이상 올라갈 때도 없고. ‘아,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그 날은 아마 사람들하고 술도 많이 먹었을 거예요” (H씨)

“그니까 ‘혹시라도. 혹시라도 대법에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법이 끝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 해고자구나’ 이런 생각들이 피부로 와 닿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싸워야 돼’ 그리고 그때 우리 활동 노조에서 하튼간 계속 1년 2년마다 계속 싸워왔기 때문에....거의 불씨만 불씨 정도도 안 남을 정도의 작아진 이미 다 수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라서. 근데

1 노조는 노동조합을 지칭하고 이후에는 모두 노조로 표시한다.

그렇게 조그마한 불씨 같지도 않은 불씨조차도 꺼져버리는 그런 순간이. ‘아, 이제 끝이구나’ ” (F씨)

2. 해고가 장기화되면서 생기는 증상과 변화

마지막 법원 판결 후 해고가 장기화되는 동안 연구 참여자들은 노조일을 지속하였고 이 기간에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증상, 불면증과 같은 심리·신체적인 증상 또는 알코올남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심리·신체적인 증상들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증상이 완화되기도 하였다.

2.1 짜증, 외로움

“네, 일단은 굉장히 외롭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일도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잊고 싶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찾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망가고 싶다’ 줌, 그랬던 것 같아요. 일도 힘들었고. 앉아 있으면 막 짜증이 계속, 짜증만 나고.....그냥 뭐, 울기도 하고. 멘 정신에 사람 없고 이러면, 컴퓨터 보고 있다가, 그냥 엑셀 보고 있다가, 그냥 서러웠어요” (A씨)

2.2 불면증, 알코올 남용

“거의 3-4시간도 거의 못 잤고. 어쩔 때는 뜬 눈으로 2-3일도 거의 누워서 자기 못하고. 앉아서 잠깐 졸고. 되게 심했죠. 주변에서도 다 걱정하고....거기 어디더라 몇 번 받으러 다녔었거든요 심리치료라 그래서 그거 다니면서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가급적 음식을 안 먹었고. 커피니 이런 거 다 끊었고. 컴퓨터도 안 켜고. 이러 저러한 걸 많이 했어요. 언제부터가 없어졌더라고요” (I씨)

“나한테 등에 칼을 꽂은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내가 수년간을 같이 함께 했던 내 동료들이냐’ 이런 걸로부터 해서 되게 오래 고생했어요. 불면증으로...그래서 그때 이제 버릇들이 지금 이제 업무적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잠이 안 와요. 그 때 생긴 버릇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오래 지나야지 떨쳐지더라고요 그게. 한 3년 갔던 것 같아요...아, 근데 이제 계

속 잠을 못 잔 것은 아니고, 이제 한 동안은 뭐 거의 잠을 못 자다가 술 먹으면 잠을 잘 자요, 술이 완전 만땅 취하면. 그리고 조금만 어떤 심각한 상황이나 심리적 압박이 있으면 또 잠을 쪽 못 자고.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아서 이렇게 기간이 한 3년 갔던 것 같아요” (J씨)

2.3 감정조절의 어려움

“그러면서 상태가 더 나빠졌고. 그게 한 6개월, 7개월 더 가면서. 그리고 나서, 예, ‘어, 이러면 안되겠다’ 그러니까 처도 좀 걱정스러웠나 보드라구요. 술도, 술은 원래 워낙 좋아해요. 술도 많이 먹게 됐고. 그러면서 참, 그러면서 약을 먹었어요. ‘안되겠구나 이거’ 감정 조절도 잘 안되고.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갔었어요” (A씨)

2.4 피해의식

“또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청소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남자들끼리 쓰면 더러워요. 청소 같은 거 하고 있으면은 얘기하면 ‘어휴, 고생했다’ 이런 얘기는 바라지 않지만 ‘어휴 그래도 해고자가 있어야 깨끗하네 이런 식이에요’. ‘아이 저 새끼 무슨 해고자를 갖다가 청소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냐’ 이런 느낌들. 그 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이 이게 막 쌓이더라고요” (H씨)

2.5 배우자의 증상

대부분 연구 참여자가 심리·신체적 증상을 보였는데 한명의 연구 참여자의 경우 배우자가 연구 참여자보다 심리적인 고통을 나타내었다.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러니까. 저까지도 불안해지고. 이게 원래 그렇더라고요. 안 사람이 그러니까. 아유, 그냥 저까지도 일이 손에 안 잡히는거예요. 버럭 화를 내고, 버럭 짜증을 내고,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터지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더라고요” (I씨)

2.6 노동욕구

해고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다시 복직해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수년간 지속되었고 이 때 일하던 당시의 꿈

을 꾸고 그리워했으며 일부 연구 참여자는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복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노동욕구가 강하게 남아 있었다.

“꿈을 또 많이 꿰던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있었어요. 글 하나 쓴 게 있었는데, 해고자들 사진 이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온다’ 책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글 하나 쓴 게 있는데, OO보는 꿈을 꾸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들이 그게 있거든요. 달리다가 항상 이제서는 게 문제이거든요.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요... 안 서니까, 발로 막 이렇게, 힘 가게 되고, 몸 저절로 뒤로 가게 되고. 그런 꿈에 관한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좀 많이 꿰던 것 같아요” (A씨)

“일하고 싶어요. 현장에 지금 사람이 없다고 되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가서 일하고 싶어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가면, 그러니까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복직시켜 줄게 지방을 가’ ‘부산이나 호남이나 이런데 가’ 그러면 갈 것 같아요. 가라면 갈 것 같아요. 거기서 다시 하더라도 거기도 사람이 있는 거니까, 어차피. 다시 거기서 그냥, 제가 차량인데, 시설 전기도 있어요. 전봇대 타는 사람도 있고. 시설이라고 해서 현장 노동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시거든요, 근데 그런데 가라고 해도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가고 싶어요” (H씨)

3. 장기화된 현재의 상태

해고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심리·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해고자로서의 불안감과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는 고립감, 무기력, 알코올 남용,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걱정 등에 더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다른 해고노동자로 인해 심리적 고통과 압박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연구 참여자의 경우 자신의 가치관과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성찰을 통해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3.1 불안감, 무기력, 화, 알코올남용

“‘야, 이걸 투쟁트라우마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싸움거리를 만들어내고, ‘복직싸움을 뭘 하자’ ‘어디 가서 우리 난장을 칠까’ ‘어디 가서 천막 할까’ ‘도보 한번 더해’ ‘우린 뭘 해야 되지’ 이런 걸 끊임없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안 하면 불안해요. 그걸 편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죠” (F씨)

“그러면서 더 무기력해지는 것도 있고. 어, 술주정도 좀 늘고, 알코올 중독성도 좀 상당히. 예, 술 한번 먹으면 예, 진짜 밤새도록 먹게 되고. 그런 게 심해지고. 그런 게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런데, 좀 친한 사람들이나, 특히 처한데는 되게 막말하게 되고. 이런 게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더 심해진 거는 이제 화내는 게 좀 있어요. 분노 조절이 안되고. 회의 때도 그런 게, 그런 게 심해진 것 같아요” (A씨)

3.2 괴리감, 고립감

“해고된 뒤에도 한동안은 그렇게 있다가 점점 현장하고 괴리감들도 느껴지기 시작하고. 일을 안 하고 현장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복직에 대한 희망은 복직은 저는 아직도 복직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복직해도 일을 못할 거 같아요. 왜냐면 사회생활이나 뭐, 이런 직장생활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이 전혀 안돼서 못 할 거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이상하게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F씨)

3.3 다른 해고자의 상태가 미치는 영향

해고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주변에 해고노동자들의 정신적인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한 상황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해고상황에 대해 또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담·치료를 받는 등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장기 해고 12년 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

이 너무 너무 많아요. 해고가 길어지다보니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몇 명 있고. 가정에서도 안 좋고. 좀, 뭔가 멘탈이 붕괴된다고 그러나, 그런 것 같아요. 장기해고는 저렇게 정신력이 컸던 선배들이 힘들어지고 막 그런 것 보려면” (J씨)

“00이라는 애가 자살을 했어요. 00년 해고자 중에 있는데요. 제가 그 때도 00였고 이제 제가 이제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별명으로 ‘엄마’ 라고 그러거든요 ‘엄마’라고. 00한테는 ‘아빠’ 라고 그러고. 근데 그 00이도 그랬었어요. 나하고 나이가 4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엄마, 밥 안 먹어요? 있다 술 한 잔 할래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 사망소식을 들으니까. 진짜 힘들었죠. 근데 대다수 사람들 다 힘들었고. 특히, 우리 00가 지금 그 때 당시 00였던 분이 지금 집에서 못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알코올중독 그거로” (I씨)

3.4 행복감

일부 연구 참여자는 노조에서 해고노동자들의 심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지원하는 상담·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해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노조동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한 연구 참여자는 해고상황을 겪으면서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는 노조활동을 통해 인간적인 성숙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썩 만족하는 상황이 아닌데. 어제도 저녁 먹으면서 그랬는데 ‘요즘 제일 행복하다’고 내가.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좀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고 치면, 요즘에는 긍정적인 면이. 시골집이긴 하지만 집도 장만했고 잘 키우고 잘 살고 있다고. 해고 별거 아니라고. 자랑질을, 일장연설을 하죠. 그러면 이게 또 먹혀. 몇몇 사람들, 끄덕 끄덕거리거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해고가 안 되었으면 몰랐을 것 같구요. 다른 삶의

면도 몰랐을 것 같고. ‘가정도 이렇게 못 꾸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I씨)

4. 사회적 인식에 대한 양상

4.1 해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염려

연구 참여자들은 해고자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염려와 자격지심이 있었다. 해고노동자로서 노조일을 하고 있지만 현직에 있는 동료들에게 자격지심이 생기게 되면서 입장이 비슷한 다른 해고노동자들과 주로 교류하게 되는 상황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어머니, 아버지도 언젠가부터 와이프한테 잘해주는 게 시어머니, 시아버지 입장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막 해고되기 전에는 막 어머님이 이렇게, 집 사람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해고되고 나서부터 그걸 못하시는데. 이게 나만 그런가? 눈치 보나? 자식 눈치보나? 그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죄송스럽죠. 지금 또 아버님하고 사이도 괜찮은데 아버님도 가끔 가다 복직 언제 하나? 그러면 ‘몰라’ 남들은 안 그런 거 같은데 저만 생각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H씨)

“그런 거 힘들어요. 현장하고 내가 일하는 직장 거기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게 힘들고. 사람들도 뭐, 저만 느끼나? 침에 가면은 막 반갑다고 그러다가도, 좀 지나면 이제 막 저를 보는 게 ‘아휴 불쌍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 사람들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가기가 싫더라구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가 00에 저희 사무실이 00에 있거든요, 00에는 그나마 좀 해고자들이 많이 있어요. 본 조합이나 지방 본부나 00해고자 사무소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구요” (H씨)

“집사람도 몇몇 사람들한테 제가 해고됐단 얘기를 안 했고. 집에 있는 게 싫어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데 해고

자들 중에 지금도 오늘 나온 친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집에 있으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되는데 나와서 사실은 할 게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 되는데 아무 할 일 없이 나와서 기웃기웃 대는 거예요”(F씨)

4.2 해고된 사실을 숨김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해고되었다는 것을 배우자 외에는 자녀나 친척 및 지인들에게 숨기는 경우가 많았다. 한 연구 참여자는 10년간 자녀와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최근에 해고된 것으로 알리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튼 일상생활 할 때 해고자를 숨기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불편하고. 그러면서 폐복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친구신청을 받아도 잘 이렇게 못하게 되요. 그러니까 00에 있는 사람들 하고 뭐, 나머지 그 00에 해고자가 아닌 줄 알고 있는 사람들 하고 같이 그런 게 만들어 지면 ‘어 그런 게 거짓말인데’ 막 이렇게 탈로 날까 봐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거를 하거든요. 한 4년 전부터가 5년부터가, 봉사하면서. 00안내 제가 앞에 나가서 얘기하기 되게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한번 깨볼까’ 이러면서 00안내 신청해서, 그 봉사해가지고 00안내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요. 그런 거 하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00에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래된 4-5년 정도 되니까. 그러면서 ‘아 씨, 그냥 짤렸다’고 처음부터 말할걸”(A씨)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동생은 아는데 외가, 아니 처가 쪽은 몰라요. 당시 결혼할 때도 해고자인지 모르고 결혼했거든요.....너무 좋은 데 있다고. 결혼 날짜 빨리 잡자고. 그런데 집사람도 얘기하지 말자고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복직 될 거니까, 복직 되면 되지. ‘그걸 굳이 얘기해’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얘기 안하고 결혼 했고 그래서 처갓집에서 작년에 해고된 걸로 알고 계세요. 작년에 워낙 떠들썩하게 00일간 파업하고 뭐, 그래서, 이번에 해고됐습니다. 작년에”(I씨)

“그러니까 나만 떳떳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아이도 관계가 있는데, 아이들과의 사회적인 게, 해고가 사회적일 수밖에 없어서, 니네 아빠 해고자고, 니네 아빠 나쁘고, 이렇게 되는거예요. 아이만 당당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굳이 알려줄 필요 없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내년에 스무 살이니까. 딸이 이제 어찌 되었던 일부러는 아니어도 아이한테 이제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얘기를 해도, 아들하고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의 이런 관계까지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굳이 얘기는 안했어요”(J씨)

5. 해고에 대한 대처

연구 참여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해고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노조의 지원 및 동료 해고노동자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5.1 개인적인 노력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해고상황에 대처하는 데에 차이가 있었다. 운동이나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지만 모든 연구 참여자는 지인 및 동료 해고노동자들과 음주와 담소 등을 통해 심리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

“근데 제 스스로는 걸어요. 그냥 무작정 걸어요. 한번은 얼마 전에 그거 때문에 집사람한테 엄청 혼나가지고 두 번 다시 안 한다고 했는데 00에서 00까지 걸어왔어요”(I씨)

“그래서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아진 게 0000년도인가, 아무튼 놀고 있다가. 아, 그러면서 수영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수영을 딱 하니까 제가 수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진짜 살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제 참 좋다 자전거는 타면서 머리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수영은 아무 생각을 안 하게 하니까”(A씨)

5.2 가족의 지원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들과의 갈등이 크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갈등이 있었던 경우에도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 관계가 개선되어서 과거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 명의 연구 참여자만이 가족과의 갈등을 보고하였다.

“조합 일을 하는 거나 00로서 돈을 벌어오는 거나, 액수가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나는 조합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뭐,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것 때문에, 일 때문에 늦는다거나 이럴 때 뭐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이거 일 할, 그러니까 00로서 일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늦거나 뭐, 이러면 저런 얘기 안 할 텐데, 조합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 할 때 예. 되게 화가 나죠. 그런 것 같아요” (A씨)

“집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직장얘기, 여러 가지 딴 얘기 다 해요. 집에서 그냥 잘 쉬려고 하고, 또 내가 또 잘 해줘야지 생각도 있고. 집사람도 되게 힘들게 살아왔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고 장모님이 고생하시고 그래서 더 잘 해주고 싶고. 애한테도 그렇고. 집안 관계는 좋아요” (H씨)

“제가 제일 집사람과 결혼하면서 다른 거 말고 딱 두 가지만 했는데요. 하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나쁜 일 아니면 반대를 안하고 따랐으면 좋겠다는 거와 나는 가족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그래서 일정을 지금 현재 잡을 때는 1순위가 가족입장이죠” (I씨)

“어쨌든 해고 생활을 버틸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무조건 가족이 가장, 그것도 집사람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고, 고맙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00에 있으면서 저를 어쨌든 많이 지지해준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 (J씨)

5.3 사회적 지원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관계 및 사회적 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었고 다른 해고노동자들과 같이 복지활동을 함께 하는 등 사회적 지지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었다.

“현재까지는 큰 축이 되는 친구인 것 같고, 여기 이제 해고 된 집단들, 여기서도 몇 분이 있죠. 이분들하고 서로 피드백 하고, 얘기 나누고, 같이 아파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J씨)

“그래도 주위에 저랑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술 한 잔 먹을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되게 행복하고 좋죠. 힘들 때, 술 먹고 싶을 때, 속상하고 그럴 때, ‘술 한잔 합시다’ 그러면 몇 명이 또 와줘요.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가주고 ‘아, 인생 헛살지는 않았구나’ ‘몇 명 오는구나’ 그런 게 있고” (H씨)

5.4 연대투쟁의 경험

해고노동자들은 해고기간동안 도보투쟁을 기획하고 파업으로 해고된 전국의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복직투쟁의 일환으로 한 달여 기간을 함께 걸었다. 이 기간에 해고노동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더욱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때 해고노동자간의 네트워크가 단단해지면서 이후의 복직 투쟁의 발판이 되었다. 또한 이 때 형성된 개인적인 유대관계는 긴 해고기간을 견딜 수 있는 활력소 역할을 하였다.

“아, 그 때는 그냥 걷고. 그런데 걷는 게 그렇게 생각을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워낙 이렇게 오래 걷다 보니까, 이것, 저것 생각이 날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또 같은 해고자이지만 다 여러 군데서 다 해고된 거잖아요.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또 알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오해 이런... 암튼 같이 해고 되면서 같이 만나면서 같이 걸으면서 저녁 되면 같이 자는 거잖아요. 거의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해놓은 사람들도 있지만 일주일 정도 왔다가 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 때는 이랬었구나, 저랬었구나’ 그리고. 집안 사

정도 같이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뭐, 그냥 해고되자마자 잠적하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 어떻게 지냈어? 뭐 이러면서 같이 이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 좀 재미있어졌어요” (A씨)

5.5 노조의 상담지원

노조에서는 일부 해고노동자들의 해고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를 보면서 이들의 심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개입을 시작하게 되었다. 개인 상담과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여기에 참가한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참여 후 증상이나 관계가 개선되었다.

“일단은 집사람이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좀, 그 힘든 과정을 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감정이나 표현을 이제 저한테 되게 잘해요. 예전 같으면 뭐, 숨졌단 말이죠, 주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근데 요즘은 내가 물어보면 답을 하나, 하나, 사실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다 해요. 원래 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언뜻 봐도 상담자분들도 그랬는데 제가 오히려 더 여성스럽고 집사람이 남성스럽다고, 말을 너무 안하고 감추고 이렇게. 근데 요즘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부딪칠 일이 별로 없어요” (I씨)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어쨌건 그 상담이나 이런 거 있으면 교육이나 이런 거 있으면 받을 거고. 왜 그러냐면 그게 좋더라고요. 이제 자기, 내가 편하고 편해지는 길인 것 같아요...그리고 이번에 심리상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000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안에서, 이제 우리 해고자들 같이 치료받았던 사람, 같이 상담 받았던 사람들이 피드백을 막 하다보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 집사람이 그래요. 주위에서도 그러고” (J씨)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해고기간이 4년에서 11년까지 평균 8년 4개월인 장기해고근로자 5명을 심층 면담한 내용을 통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리적 경험을 하는지 현

상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해고 당시 노조의 간부로 활동하였고 파업으로 인한 징계해고를 당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노조 간부로 활동했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해고를 어느 정도 예상하였고 해고된 후에는 해고에 대해 노조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해고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인 감정 동요는 적었다. 더구나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면서 징계해고가 되었지만 해고 당시나 현재에도 여전히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시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분노가 가장 큰 감정이었다. 특히 해고 당시에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범위가 커지면서 많은 동료들이 함께 해고되어 다른 해고자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기도 했다. 해고로 인해 생기는 복잡한 감정과 생각들은 오히려 해고 당시보다는 그 이후에 생기기 시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해고 당시에도 이후에도 계속 노조일을 하고 있었고, 이 기간에 복직소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쳐 복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초반의 해고기간을 보내고 있었다. 따라서 해고에 대한 심리적 타격이 초기에는 비교적 크지 않았다. 그러나 복직소송절차 중 해고가 된지 3여년 후 마지막 법원의 판결에서 패하면서 법적으로 복직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후 심리적인 고통과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 판결 이후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해고자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해고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심리적인 고통과 증상들이 더 악화되었다. 마지막 판결 이후 이들 중 일부는 우울증,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심리적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불면증과 같은 심리·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면서 상담·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알코올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면서 알코올에 의존하는 비중도 증가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법적으로 복직 가능성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였고 이러한 경험이 심리적인 타격으로 심리·신체적인 증상을 유발하고 악화시켰다.

사회적 관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노조일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해고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현직에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다는 피해의식이 생

기면서 현직에 있는 동료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되고 해고된 노동자와의 만남이 증가하게 되었다.

마지막 판결 이후 복직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일하고 싶다는 욕구도 더욱 증가하였다. 일하는 꿈을 꾸는 등 복직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해고가 장기화된 연구 참여자들의 현재 상태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는 지낼 수 없는 불안감, 또는 전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 상태가 혼재한다. 또한 분노 조절의 어려움과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이다.

10년 이상 해고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복직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거의 희박해지고 복직해도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괴리감과 해고자로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고립감을 느끼기도 한다.

해고기간동안 노조간부로서 건강한 정신력을 보여주던 해고노동자들이 알코올 중독 등 심리적 및 신체적으로 와해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자살을 하는 동료 해고노동자들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일부는 해고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현재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일반적인 해고노동자에 비해서 노조에서 매월 실업급여와 같은 구호금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노조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적으로는 일반 노동자와 같이 일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고통과 증상이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심리적 증상은 유럽의 실업자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실업자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독일의 실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불분명한 증상, 우울, 두려움, 주관적인 불편감, 자존감의 손상을 나타내었다.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우울이나 두려움을 나타내는 비율도 실업자가 근로자보다 두 배 더 많았다[26]. 이는 경제적인 지원이 실업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유럽의 실업자와 달리 연구 참여자들은 노조근무라는 일상적인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증상이나 고통이 나타나는 것은 Jahoda가 설명하는 노

동이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 중 해고노동자들이 사회적 정체성과 지위확보에서의 결핍[10]으로 인식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실업기간이 심리적 및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한 연구[7]에서 나타났듯이 장기간의 해고기간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증상 악화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고가 장기화되면서 직장으로 복귀했을 때 재적용의 두려움과 이직의 경우 40대 중후반의 나이로 구호금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감의 결여로 인해 복직도 이직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불안감, 무기력감, 알코올 문제 등과 같은 증상들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해고가 심리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준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특히 노조일을 직업처럼 여기면서 현재까지 노조간부로 일하고 있는 J씨의 경우 처음 수년간은 불면 증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배우자와 주변 동료 해고노동자들의 심리적인 고통을 지켜보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동료 해고노동자의 자살을 경험하면서 심리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은 결과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노조에서 제공한 상담 및 치료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가족관계 및 동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오히려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해고노동자이지만 매월 노조 구호금을 지원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노조일을 의미 있는 일로 해석하며 가족 및 사회적인 지원이 충분한 경우이다. 다시 말해 해고가 되어도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단단한 가족·사회적 관계 및 지원이 있다면 심각한 해고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의 선행연구[12]에서 사회적 지지체제의 중요성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장기간의 해고기간을 지내기 위해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인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가족, 지인, 사회적 지원 등 탄탄한 사회적 지지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4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원만한 가족관

계를 가지고 있었고 모두 담소와 음주를 할 수 있는 지인들이 있었으며 복지활동을 함께 하는 동료 해고노동자들과 탄탄한 관계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일부 해고노동자는 동료 해고노동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탄탄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긴 해고기간을 비교적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스트레스 모델[11]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상황을 잊거나 회피하는 정서중심적 대처방식과 문제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해결적 대처방식 모두를 사용할 때 건강하게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낸다고 본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취미활동을 하거나 음주 및 담소를 하는 정서중심적 대처방식과 함께 동료 해고노동자들과 복직을 위해서 함께 투쟁하는 사회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문제해결적 대처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장기간의 해고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이 기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업 자체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외국의 선행연구[10]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해고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개인적인 고통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연구 참여자가 가장 심각한 심리적인 증상을 호소하였다. 여기에 비해 가족과 지인 및 동료 해고노동자와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교류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는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안정 아래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다른 일반 해고노동자와는 매우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일반 해고노동자는 해고 이후 일차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더욱 크고 재취업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재취업이 안되고 해고가 장기화될 경우 심리적인 문제도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노조에서 지원하는 구호금이 유럽지역의 실업지원금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유럽지역의 장기실업노동자와 유사한 상황이다. 유럽의 경우는 실업노동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기간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지원과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 등 심리적·사회적 지원을

위한 연구와 국가의 개입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해고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 관한 염려이었다. 이를 반영하듯이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해고된 것을 배우자와 자녀들 등 가까운 가족에게만 알리거나 자녀들에게조차도 알리지 않는 등 해고자로서 받게 될 선입견과 편견을 의식하고 해고 사실을 감추었다. 이러한 것은 한국에 아직 해고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며 사회적 낙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해고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해고가 가져오는 영향, 특히 장기해고자의 심리적 경험을 연구함으로써 해고가 노동자에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보도되는 장기해고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올해 발표된 해고 6년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연구 결과[27]에서 우울 및 불안장애를 겪은 해고자는 75.2%, 복직자 30.1%, 일반 자동차 공장 노동자 1.6%로 나타났다. 불면증 및 수면장애가 나타난 해고자는 72.2%, 복직자 49.0%, 일반 노동자 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해고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이 얼마나 긴급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일차적으로는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상담 및 치료와 같은 심리적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본 연구 참여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해고기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복직이 가장 큰 치유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고가 상시화 되는 상황에서 해고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서 일시적인 실업급여 지급에서 복직이나 재취업까지 경제적으로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신체적 치료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심리적 지원을 병행한다면 비교적 해고기간을 심리·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장기해고노동자의 목소리를 일차적으로 전하고 아직 연구가 미흡한 이 분야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장기해고노동자의 심리적 상황을 일차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해고노동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과 함께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5명의 연구 참여자 중 두 명이 해고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였지만 이후 자신에 대해 긍정적 변화를 보고한 점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사회적·심리적 지원이 이뤄졌을 때 생기는 변화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이 40대로 국한되어 있고, 노조가입 노동자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해고자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어서 해고로 인한 심리적 영향의 강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해고 이후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다양한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연구하지 못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의 특성상 유사점이나 차이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계기로 향후 해고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적 및 양적으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최영기, “시사논단: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연구, 제17권, 제1호, pp.713-735, 2009.

[2] 권혁, “해고유형론에 관한 소고”, 부산대학교 법학 연구, 제51권, 제1호, pp.713-735, 2010.

[3] 한내, “해고는 살인이다. 급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노동자역사”, 한내, 2010.

[4] <http://www.vop.co.kr/A00000881637.html>

[5] <http://www.vop.co.kr/A00000379494.html>

[6] 김병숙, *직업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7.

[7] 김병숙, 김수정, 안운정, “실업자의 심리적·신체적 반응 단계별 주요 증후군 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pp.93-112, 2009.

[8] 김병숙, 박선주, 김소영, “청년장기실업자의 증상

중심 대응전략 결과분석”, 한국진로교육학회, 제20권, 제3호, pp.139-147, 2007.

[9] T. Kieselbach and A. Wacker, *Arbeitslosigkeit*. In G. Weninger(Hrsg.) *Lexikon der Psychologie A is E*, Heidelberg: Spektrum der Wissenschaft, 2000.

[10] T. Kieselbach and G. Beelmann, *Arbeitslosigkeit Gesundheit: Stand der Forschung*. In Holleederer A. Brand H.(Hrsg.), *Arbeitslosigkeit, Gesundheit und Krankheit*, Bern: Verlag Hans Huber, 2006.

[11] R. S. Lazarus and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1987.

[12] 박영신, 김의철, “경제불황기의 실직자와 직장인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사회적 지원 :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제6권, 제1호, pp.85-117, 2000.

[13] 백용매, “실직자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예방적 접근”, 동서정신과학, 제2권, 제1호, pp.94-115, 1999.

[14] 오수성, “국제금융위기 후 실직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 스트레스 대처양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제20권, 제2호, pp.481-496, 2001.

[15] 정진주, “정리해고자의 삶의 질과 건강상태의 현주소와 대안을 찾아서”, 노동사회, 제59권, pp.90-103, 2001.

[16] 이창근, “정리해고와 자살문제에 대한 접근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노동자 정신건강 보고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158-169, 2012.

[17] G. Fischer and P. Riedesser, *Lehrbuch der Psychotraumatologie*, Basel: Ernst Reinhardt Verlag, 2003.

[18] B. Starrin, U. Rantakeisu, E. Forsberg and M. Kalandar-Blomqvist M. *Understanding the health consequences of unemployment - the*

financial/shame model. In T. Kieselbach(Ed.), *Youth unemployment and health. A comparison of six European countries*, Opladen: Leske+Budrich, 2000.

- [19] D. Fryer and R. Payne, "Proactive behaviour in unemployment: Findings and implications," *Leisure studies*, Vol.3, pp.273-295, 1984.
- [20] P. R. Jackson and P. B. Warr, "Unemployment and illhealth: The moderating role of duration and age," *psychological Medicine*, Vol.14, pp.605-614, 1984.
- [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501111646161
- [22] J. W. Creswell, *질적 연구방법론*,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학지사(원전은 2007년에 출판), 2010.
- [23]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2006.
- [24]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 [25] A. Strauss and J. Corbin, *Basi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8.
- [26] K. I. Paul, A. Hassel, and K. Moser, Die Auswirkung von Arbeitslosigkeit auf die psychische Gesundheit: Befunde einer quantitativen Forschungsintegration. In Holleederer A., Brand H.(Hrsg.), *Arbeitslosigkeit, Gesundheit und Krankheit*. Bern: Verlag Hans Huber, 2006.
- [27]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94615.html>

저 자 소 개

임 정 선(Jeong-Sun Lim)

정회원



- 1997년 11월 :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심리학과(석사)
- 2005년 5월 :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심리학과(박사)
- 2009년 7월 ~ 현재 :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트라우마, 피해자상담, 애착이론